KB증권

디지털 자산/ 원자재 Analyst 오재영
02-6114-1668 jaeyoung.oh@kbfg.com

다이아 KB Brief

비트코인 가격 28,000달러대 도달, 4월의 주요 이벤트 점검

디지털자산 동향

2022년 3월 24일

3월 비트코인 가격 추가 상승하며 주요 저항구간인 28,000달러대 도달

연초 이후 강한 상승세를 보인 비트코인 가격은 3월 28,000달러대까지 (연초 이후 약 80%) 상승했다. 비트코인 가격의 연초 이후 상승은 1월~2월에는 주로 금리인상 종료에 대한 기대와 글로벌 경기 개선, 3월에는 SVB 은행을 시작으로 주요 은행권 위기로 인한 대체자산으로서의 비트코인 수요와 금리 인상 전망 후퇴가 상승을 주로 견인했다. 2019년에도 2017~2018년 대상승기~대하락기 이후 실질금리 하락이라는 매크로 환경과 함께, 비트코인의 하락분의 절반 이상의 되돌림이 발생했는데, 2023년 상반기도 같은 성격으로 판단하고 있다 (2/7 비트코인 연초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까?). 비트코인 가격이 3개월 간 가파르게 상승했으며, 28,000달러대는 시장에서 인식하고 있는 주요 저항구간으로 추가 상승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

더 많은 리포트 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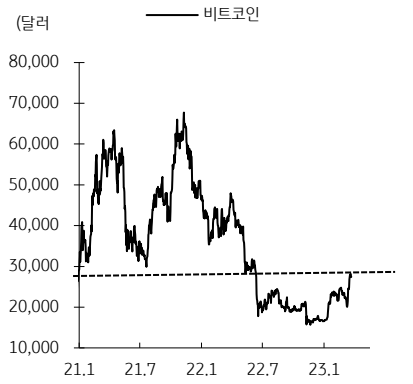
4월 주요 이벤트 1) SEC-리플 소송, 2) 이더리움 상하이 업그레이드, 3) 마운트곡스 보상

1) 가장 중요한 이벤트는 지난 2년간 진행되어온 SEC와 리플사의 소송이다. 4월 중으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현재 SEC의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규제는 대부분 암호화폐의 '증권성'에 대한 시비에서 비롯되며, 그 중 가장 대표적인 리플사의 소송 결과가 다른 암호화폐에도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리플 소송의 결과 예측은 어려운 상황이며, 암호화폐 역사상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큰 리스크 요인으로 꼽혀온 소송이기에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SEC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규제 행보는 지속되고 있다. 지난 2월 각각 BUSD 발행사 PAXOS사와 크라켄 거래소에 대한 소 제기 이후, 루나 창업자 도권, 그리고 3월 22일에는 코인베이스와 트론 창업자인 저스틴 선에 대해 미등록 증권관련 소를 제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단기적으로는 SEC 규제가 시장의 리스크 요인으로 지속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하고 장기적으로는 미 정부의 규제를 통해서 암호화폐 시장을 정리하고 제도권으로 편입시키려는 움직임이며 향후 기관 자금유입, 현물 ETF 승인으로 이어지기까지 필요한 수순으로 판단한다.
2) 4월 12일 이더리움의 상하이 업그레이드 (기존 3월에서 연기)에 따른 이더리움 매도 물량 우려다. 이번 업그레이드는 지난 2022년 9월 머지 업그레이드 (합의 알고리즘을 작업증명 -> 지분증명으로 변경)에 이어, 그동안 스테이킹 (이더리움의 비콘체인에 예치)된 이더리움의 출금을 가능케하는 업그레이드인데, 이를 통해 예치되었던 물량 총 1,650만개 (유통량의 14%)가 시장에 매물로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지난 9월 이더리움 머지 업그레이드 당시에도 직전 1개월간 이더리움 가격이 7월 1,100달러에서 9월 1,700달러까지 상승하여 시장을 견인하였으며 이후 업그레이드 직후 1,300달러대까지 재차 하락했다. 한편, 상하이 업그레이드 전에도 리도 파이낸스 등 대출 파이낸스를 통해 스테이킹된 이더리움을 유동화시켜 투자할 수 있었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많다.
3) 마지막으로 '마운트 곡스 보상안 물량'이다. 2014년 대형 해킹사건으로 파산했던 일본 마운트곡스 거래소의 채권자들에게 비트코인 13.7만개를 지급 개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급받은 채권자들의 일시 매도 우려가 시장에 악재로 작용 중이다. 예상 상환 날짜는 2022년 8월에서 올해 초, 그리고 4월 13일로 연기 중이다. 비트코인 13.7만개는 하루 유통량의 8% 수준으로 크다. 지난해 루나 사태에서 루나재단 비트코인 총 8만개 중 6~7만개 정도가 하루이틀 사이 매도되면서 시장에 큰 충격을 줬다. 다만, 과거 2014년 비트코인 가격은 500달러 내외로, 현재 비트코인 가격 28,000달러는 50배 이상이며, 지난해보다 암호화폐 시장 환경이 개선되었음을 감안하면 물량은 부담되나 단기간 내 동반 투매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 마운트곡스 최대 채권자 2인도 현금화 (매도)가 아닌 비트코인으로 보상받는 것을 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9월 이더리움 머지업그레이드 전후 가격 추이

자료: Bloomberg, KB증권

비트코인 28,000달러대까지 상승



자료: Bloomberg, KB증권

표 1. 주요 가상 자산 및 기타 자산군 수익률 동향

자산	단위	종가	수익률 (%)				
			1주	1개월	3개월	1년	연초 이후
비트코인	달러	28,304.8	1,815.6	1,988.0	70.1	11,787.4	2,415.0
이더리움	달러	5.5	4.1	-0.1	5.0	1.3	0.8
금	달러/온스	22.5	13.3	9.8	-8.2	3.4	-0.4
원유(WTI)	달러/배럴	68.2	48.9	10.6	-11.9	12.3	4.4
나스닥	지수	-35.5	-41.5	1.5	-37.6	-16.9	-11.5
코스피	지수	70.5	51.0	9.0	-12.7	12.6	8.0

자료: Bloomberg, KB증권/ 주: 3월 24일 15:30 기준

그림 1. 비트코인 가격 추이

2019년과 같은 흐름이라면 69,000달러에서 15,000달러까지 하락한 데에 따른 되돌림은 30,000~40,000달러 내외일 가능성

자료: Bloomberg, KB증권

주간 가상자산 뉴스동향

글로벌 동향

-미국 사우스다코타 주지사, 암호화폐를 화폐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개정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 (3/13)
-미 규제당국, 이더리움의 자체 통화인 이더(ETH)가 증권이라 주장하며 거래소 쿠코인(KuCoin) 상대로 소송 제기 (3/14)
-유럽 의회, 스마트 컨트랙트에 킬 스위치 기술을 의무화하는 법안 가결 (3/15)
-미 SEC 위원장 게리 겐슬러, 지분증명(PoS)토큰이 증권이 될 수 있다고 재차 언급 (3/16)
-미국 플로리다 주지사, 정부에 의한 감시 가능성 등 부작용을 근거로 플로리다 내 CBDC 사용 금지 법안을 제출 (3/21)
-코인 베이스, 시그니처뱅크의 결제 네트워크인 Signet 기반의 이체 일시 중단. Signet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결제 네트워크 제공업체 물색 중 (3/21)
-미 백악관, 디지털 자산이 소비자와 금융 시스템 전체를 위협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하며 암호 화폐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 (3/22)

국내 동향

- 금융감독원, 토큰 증권 제도화를 앞두고 논의를 위해 5대 암호화폐 거래소 대표 소집 (3/22)
-국내 5대 암호화폐 거래소로 구성된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상장 심사 관련 공통 가이드라인 발표 (3/22)

주요 국가 동향

-스위스은행협회, 스위스 디지털 경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예금 토큰' 이라는 새로운 디지털 화폐 제시 (3/17)
-영국 재무부, 2025년부터 세금 신고서 제출 시 암호화폐 자산 별도 보고 의무화 (3/17)
-대만, 암호화폐 시장 규제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 자산 유형이 명확하지 않은 NFT 규제는 시기상조라고 언급 (3/20)
-홍콩 재무국장, 2024년에 스테이블 코인 규제 시행을 계획하고 있다고 발표 (3/20)

펀드 및 ETF 동향

-스위스 암호화폐 ETP 제공업체 21Shares, 암호화폐 ETP 상품 6종 지원 중단 발표 (3/17)

개별 암호화폐, NFT, STO 시장 동향

-닛산, NFT 거래 및 발행을 통한 시장 구축을 위해 미국에서 웹3 관련 상표 제출 (3/13)
-페이코인(PCI), 싱가포르 결제 기업 트리플에이(Triple-A)와 제휴 맺고 결제 서비스 출시 예정 (3/14)
-블록체인 업체 파라메타, 광고 펀딩 중개 플랫폼 유하와 STO 활용한 콘텐츠 조각투자 플랫폼 구축 (3/21)
-미국 세무당국, NFT에 대한 과세 여부를 적극 검토 중 (3/22)

투자자 고지 사항

KB증권은 동 조사분석자료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조사분석담당자와 그 배우자는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 작성자는 게재된 내용들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이 보고서는 고객들에게 투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며 계약의 청약 또는 청약의 유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이 보고서는 KB증권이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하는 자료와 정보에 근거하여 해당일 시점의 전문적인 판단을 반영한 의견이나 KB증권이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개별 투자는 고객의 판단에 의거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이 보고서는 여하한 형태로도 고객의 투자판단 및 그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이 보고서의 저작권은 KB증권에 있으므로 KB증권의 동의 없이 무단 복제, 배포 및 변형할 수 없습니다. 이 보고서는 학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므로, 학술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KB증권에 사전 통보하여 동의를 얻으시기 바랍니다.